“주거권 보장 적극 나서겠다”

4월 24일, 쪽방촌 찾은 진우 스님
주거 실태 확인 “건강하시라” 인사
주민 120명 함께 사찰음식 공양
“공공주택 실현 위해 정부에 호소”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4월 24일 서울 동자동 쪽방촌을 방문해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주민들의 삶을 살폈다. 사진 제공=조계종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을 찾아 주민들의 삶을 직접 살폈다. 열악한 주거 환경을 확인한 진우 스님은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다.

진우 스님은 4월 24일 오전, 동자동 쪽방촌을 방문했다. 이번 일정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생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6월 22일 ‘사회적 약자 초청법회’를 개최하고, 올해 1월 1일 ‘사회적 약자 초청 새해맞이 108배 기도행사’를 연 데 이은 연장선이다.

서울역 맞은편 언덕에 자리한 동자동 쪽방촌은 50년 이상 된 노후 주택 밀집 지역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숙인들이 모이며 국내 최대 규모의 쪽방촌으로 형성됐다. 현재 800여 명이 0.5~2평 남짓한 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 중 85%가 기초수급자며 60% 가까이가 무연고자다. 정부는 2021년 공공주택개발 추진 계획을 발표했지만 건물주 반대 등으로 주민들의 주거복지 실현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날 진우 스님은 좁은 골목을 따라 이동하며 건물 출입구와 복도, 공동 공간 등을 살폈다. 이어 직접 쪽방을 찾아 주민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첫 번째 방문한 곳은 60년이 넘은 낡은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이 모(67) 씨의 방. 성인 한 명 겨우 누울 만한 공간에서 23년째 생활하고 있는 이 씨에게 스님은 건강상태와 식사 등 안부를 먼저 물었다. 가족과 일상생활에 대해서도 꼼꼼히 묻고 이야기를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인 스님은 이 씨에게 선풍기를 선물로 건냈다. 이어 손을 꼭 잡아주며 “건강하시라”고 인사를 전했다.

두 번째 방문한 방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작고 열악한 상황. 진우 스님은 문 열린 방 앞에서 겨우 김 모(77) 씨에게 인사를 전했다. 이어 선풍기를 전달하며 “공공주택이 만들어져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쪽방 현장 점검 이후에는 인근 새꿈어린이공원에서 사찰음식 공양이 이어졌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찰음식 팀이 연잎밥과 우엉들깨탕, 채소잡채, 콩고기 볶음, 도토리묵 무침, 버섯탕수이, 도라지초무침, 봄나물, 김치찜, 열무김치 등 반찬 8가지와 후식으로 과일과 떡 170인분을 준비했다.

공양에 앞서 진우 스님은 “예전부터 동자동 쪽방촌 얘기를 많이 들었으나 피부로 느끼지 못하다가 오늘 직접 보고 많이 놀랐다”면서 “불교가 앞장서서 불편을 해결하는 데 힘이 됐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정부 관계자, 정치인, 사회 지도층들에게 호소해 공공 임대주택 문제가 빨리 해결돼 조금이나마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갑일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 사업이사는 이날 자리를 마련한 조계종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동자동을 잊지 않고 찾아줘 감사하다”면서 “공공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희망의 길에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계종과 아름다운동행은 주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며 선풍기 130대를 전달했다.

적행 스님 “의료비 지원 보탬 되길”

승려복지기금 5000만원 전달
강의·법회 등으로 기금 마련



〈한글경전모음집〉 등을 출간하며 문서 포교에 힘쓰고 있는 적행 스님이 스님들의 의료비 지원 기금을 쾌척했다.

적행 스님은 4월 2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승려복지기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기금은 강의와 법회, 출판 활동 등을 통해 마련한 것이다.

적행 스님은 “7~8년 전 뇌졸중을 앓아 병원 생활을 하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스님이 많은 걸 알게 됐다”며 “저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변 사람들도 보시의 마음을 내면 좋겠다는 생각에 후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어려운 와중에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한편으로는 반성한다”며 “스님들이 걱정 없이 일념 정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현희 수습기자

“부탄 마음챙김 도시 협력 기대”

부탄 총리, 진우 스님 예방 자리서
‘겔레푸 마음챙김 도시’ 관심 요청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4월 3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체링 톱개 부탄 총리의 예방을 받고 부탄이 건설하고 있는 ‘겔레푸 마음챙김 도시’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겔레푸 마음챙김 도시’는 부탄 중앙정부로부터 자체 법률, 화폐, 규정 등을 보장받는 국제적 수행·힐링 도시로, 전 세계 국가의 사찰과 명상센터, 의료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체링 톱개 총리는 “겔레푸 마음챙김 도시는 수행과 영적 가치가 우선시되는 진정한 공동체를 추구하고자 한다”면서 “조계종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도시 비전을 공유하며 실질적 협력을 위한 대화를 앞으로 이어가자”고 말했다.

글=임은호 기자 · 사진=박지운 수습기자

6·3 지방선거 후보들, 진우 스님 잇따라 예방

박수현 후보에 전통 보존 당부
김상욱 후보엔 ‘중도 지혜’ 강조


박수현 충남도지사 후보.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 후보들이 잇따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가르침을 구했다.

진우 스님은 4월 2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의 예방을 받고 “불교는 K-문화의 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충남의 역할과 전통문화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오늘날 K-문화와 K-예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유구한 역사 속에서 1700년을 이어온 불교의 전통과 민족의 정신이 맞물려 표현해낸 것”이라며 “불교적 영향을 떼어놓고는 한국문화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전통문화유산을 바라보는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도 주문했다. 스님은 “우리 전통문화유산을 잘 보존해 후대에 온전하게 전승해야 하는데, 이는 국가가 당연히 맡아야 할 책무임에도, 그간 스님들이 신심으로 지켜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그럼에도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예산은 ‘떡 하나 더 주는’ 식의 시혜처럼 이뤄지는 측면은 아쉬움이 있다”며 “도지사가 된다면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박수현 후보는 전통문화 보전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4월 28일에는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만나 흔들림 없는 마음가짐과 중도의 지혜를 갖춰 시민들에게 안정과 희망을 주는 행정을 펼칠 것을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특히 경제 발전 등 외형적 성과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마음 안정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감정에 이끌리면 갈등만 커진다. 외부적인 영향을 덜 받아야 덜 불행하고 덜 괴롭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강한 정신력으로 담담한 마음을 유지해야 중도의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가 냉철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모여 그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건데, 언제부터인지 울산이 고립되고 배타적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는 것 같다”며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회복하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도시를 잇는 연결을 통해 발전된 울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김내영 기자

“저출산 해법, 심리 안정…불안 줄여야”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
4월 28일 진우 스님 예방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부위원장에게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사회 전반의 불안 요소를 줄이는 데 진력할 것을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4월 2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의 예방을 받았다.

진우 스님은 “종교계도 범종교 차원에서 저출생 극복 운동에 힘을 모으고 있다”면서 “마음이 편안해야 연애와 결혼, 출산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회 전반의 불안 요소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오 부위원장은 “정부가 제도적 지원을 맡고 있다면 종교계는 사회적 인식 개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